

강진만 생태공원에 큰 고니 뜬다



강진만 생태공원에 가면 강진만 겨울진객 큰 고니를 사계절 볼 수 있게 된다.

군은 강진을 강진만 생태공원에 강진만 생태공원 큰고니 상징조형물 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가우도와 함께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해 각광받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곧게 뻗은 남포제방 주변에 66만1천100㎡(약 20만평) 규모의 갈대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1천131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01-1호 '고니'와 제201-2호 '큰고니'의 대표 월동지로 유명하다.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갈대숲 사이에 데크길을 조성하고 관광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강진군은 강진만 생태공원의 전국 명소화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 강진만 생태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상징조형물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전국 제안공모에 들어

강진군, 천연기념물 '큰고니' 조형물 설치 공사 착수
내년 완공...강진만 갈대밭과 새로운 랜드마크 기대

가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중 '큰고니'를 형상화한 작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하게 됐다. 10월 현재 실시계획으로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이 상징조형물은 '생물자원의 보고 강진만을 향해 비람에 몸을 맡기고, 강진만의 큰고니의 날갯짓을 표현하고 있다. 양 날개 사이에 전망대가 설치돼 강진만을 조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조형물 크기는 가로 17m, 세로 28m, 높이 20m로 조형을 설치한다. 멋진 야간 경관을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강진군은 강진만 가운데에 있는 큰 고니 조형물에 접근할 수 있고 강진만 양쪽 제방을 걸어서 오고 갈 수 있도록 나무 인도교를 설치한다. 40m 길이의 흔들다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스릴을 안기고 강진만 생태공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높이도 낮춰 설치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큰고니는 예로부터 신비와 순결을 상징한다. 큰고니가 비상하는 형상의 상징조형물은 강진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기능과 전망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엔 강진만에 비상하는 국내 최대의 큰고니를 볼 수 있고 큰고니와 함께 강진만 생태공원도 비상해 국내 최대 대표 관광지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제2회 강진만 축제는 갈대축제'가 열리고 있다.

전남 3대강인 탐진강이 강진비다와 만나는 강진만 생태공원은 상류엔 갯벌 습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고 기수역으로서 붉은발톱종개와 기수갈고동,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큰 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1천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남해안 최고의 생태서식지다.

강진=최제영 기자

곡성군, 폐건전지·폐형광등 집중 수거 환경오염 방지 앞장

5일간 250kg 수거

곡성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곡성군청 직원이 참여하는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약 250kg의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진 폐건전지는 600여 공직자의 가정과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이 대부분이다.

폐건전지·형광등이 버려져 매립되면 각종 토양 환경오염과 인체유해 물질을 발생되지만 분리배출하면 환경오염 방지 및 철·이연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은 올해 폐건전지·폐형광등 다량 수거를 위해 직원참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은 물론, 지역주민, 학생, 유관기관 참여 집중 수거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폐건전지-재건전지 보상교환사업, 읍·



면별 재활용 경진대회 등 다각도로 많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남식 부군수는 "직원 참여 폐건전지 집중수거를 앞으로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주민과 학생·유관기관은 물론, 마을 부녀회 등이 앞장서서 폐건전지 분리배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해남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해남군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수화여행사를 운영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일반 관광객 30명 이상 유치시 1인당 5000원, 수화여행단 40명 이상 1인당 3,000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여행사는 방문 5일전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사전계획서를 해남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하고 관내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 및 1박과 2식 이상을 이용하면 된다.

여행 후에는 2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관광객(관광지, 숙박, 음식) 이용 확인서, 단체관광객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군에서 업소 이용확인 등을 통해 30일 이내에 해당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까지 50여개의 여행업체가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암금정 대봉감 축제 놀러 오세요"

오는 3일부터 이틀간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서 개최



영암군 금정면은 금정대봉감이 주렁주렁 붉게 물든 가을을 맞이하여 "행복다감 금정대봉감, 맛나다!"라는 주제로 제15회 금정면민의 날 및 영암금정 대봉감 축제가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에서 개최된다.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회장 김남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작년부터 다르게 명칭을 '금정대봉감 축제'에서 '영암금정 대봉감 축제'로, 장소를 금정초·중학교에서 금정농협 대봉감산지유통센터로 변경하여 향

후 군 단위 행사로 발전시켰으며, 정정 의 고장 금정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금정대봉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째 날인 3일 오전 10시에는 금정 대봉감 시배지인 안노리 모정마을에서 대봉감 풍작을 기원하는 고유제가 봉행되고 오후 6시에는 금정면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출향인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제15회 금정면민의 날 및 영암금정 대봉감 축제 기념식과 함께 공연행사, 대봉가요제 등 민민·출향인·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리얼 대봉감 판매부스 9개를 신설하여 대봉감 판매행사가 확대 개최되고 이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감과 대봉감 품종별 출품작, 대봉감 요리, 감물염색 옷, 감 사진, 감 식초 등을 전시하는 전시행사와 감물 천연염색 및 대봉감 짜기 체험행사, 대봉감 포토존이 운영되며, 아크로 CC에서는 대봉감 홍보 이벤트가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금정면 문예체육진흥회 김남수 회장은 "금정 대봉감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명칭 및 장소를 변경하고 판매를 확대하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면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대봉감을 생산하기에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 17호로 등록(2008. 11. 25)되어 고품질이나 성인병 예방, 폐의 위염을 내려주고 숙취해소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비타민A, 비타민C가 다량 함유하여 건강과일로 널리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암군의 특산물이다.



영암군, 화목한 가정 위한 부부캠프 첫 시도

1박2일 일정 지리산서 진행

영암군은 행복한가정상담센터(센터장 김남미)와 함께 지난 10월 26일부터 2일간 부부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영암군 여성발전기금으로 실시되는 이번 부부캠프는 '화(和)통(通)한 부부 - 우리 부부의 소중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부간의 소통과 화합을 원하는 부부 10쌍을 선발하여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리산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화합사와 곡성 기차마을의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복지연구소 이경미 소장의 '부부행복 수업'이라는 주제강연으로 부부들의 힐링과 정서적 교감을 위한 장이 마련되었다.

행복한가정상담센터 김남미 센터장은 "이번 부부캠프를 통해 부부의 욕구와 상처 회복 그리고 관계 패턴을 이해하고, 부부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경험으로 서로를 이해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향후에 더 많은 부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